

농어가



[해제]

<농어가>의 작자 및 제작 시기는 미상이다. 작품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대별된다. ‘음양오행과 윤리도덕 → 어려운 한시 구절을 쉬운 국문으로 전환(언어유희, 弄語) → 월령체가의 형식 → 화전가의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음양오행과 윤리도덕’이라는 규범적인 내용은 ‘4음보’의 정형화된 틀 속에 담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한시 구절을 쉬운 국문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작품은 탈규범적인 내용으로 바뀌면서 4음보에서 벗어나 ‘5음보’, ‘6음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여기에서 <농어가>가 흥미를 본위로 하는 가창가사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어가>는 가창자들이 선호하는 언어유희, 월령체가, 화전가의 사설을 적절히 엮어 빠른 곡조로 흥겹게 불렀을 것이다.

[원문]

농어가

어화 세상사람들아 이가사을 들어보소
태극이 초판후에 음양이 생겼어라
음양은 일월이요 태극은 하늘이라
일월성신 삼강이요 인왜예지 사단이라
군신유의 삼강이요 부자유친 오륜이라
수화금목 오행이요 춘화추동 사시로다
초목금수 만물만물중의 영귀하사 이내인생
어머임게 살을빌고 아바님게 배을타서
칠성님게 복을받고 서왕전에 명을바다
삼신님의 더택으로 이세상의 나섯도다
애달할사 우리부모 예지중지 길을적의
어버주고 안아주고 애홀하신 그은해를
어나천년 갑파줄고 갑기야 못할망정
성성백발 저부모을 지순차순 섬기여라
인생 일장춘몽이라 한번아차 죽어지면
열자식이 시위할듯 혼배백산 하얏으니
만반진수 벌러노들 불여성전 일배주라
오흠다 세상사람 역지사지 생각하면
삼강을 저바리고 오륜을 잇절손야
삼강오륜 제일이요 유손유손 오음이라
정한시채 이러한니 서하신구 변해간다
이미지금 사람들은 아달날고 딸날으면
제덕인줄 깎닥이면 부모공은 간대없다
자고급금 두고보면 성인문에 성현나고
충효문에 열어나고 사부가에 법절잇다
그이채난 그럴거만 일거일동 한난법이
그행신에 달려신이 반상이 따르잇나

반상이사 잇근만은 견문없고 무심하면
지망신은 고사하고 육급선조 반비십다
집에서 세든그릇 들에간들 안니셀가
지부모에 불효한기 남의부모 경디할가
관기도제 하고보면 이연수채 말할손가
일월발근 성신달과 광대한 천지간의
선선하하고 약한몸이 용남하기 어렵도다
이런이치 두고보면 이연수채 말할손가
일월발근 성신달과 광대한 천지간의
선국문이들 아니볼가 국문을 알고보면
한문보다 사치나지 내일가 들들어보소
효상한풍별경안은 한문으로 이을진대 뜻이깊어 모르거만
국문으로 이을진댄 억기춤이 절로난다
세벽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력기
이글뜻이 이러한이 알아뜻기 좀줄을가
이팔시절 청녕들아 도지요요 좋은시절
부모설화 자라날때 이공부도 못하오며
출가왜인 돼고보면 후해막급 덕오리라
무자익에 화조가와 정명도에 방화길을
공부하여 품에품고 산산백옥경 좋은대
산보도 하려니와 노름을 아니갈래
춤삼을 호시절의 화전도 함직하고
유월염천 그늘속에 위도래도 함직하고
중춘팔 십오일에 제시진설 함직하고
구시월 시단풍에 잔찬구경 함직하고
동지섯달 돌아들어 서답빨래 정이하여
찬찬의복 말라내여 송구영신 함직하고
세류정정월 돌아드려 삼삼오오 작만하야
등동산이 망월하고 화토 쌍웃놀이
일월이라 한식일의 계자추에 맑은춤에
제문지원 위로하자 찬밥으로 추상하고
사월이라 초파일의 청사초롱 불밝겨서
문을동방 거려놓고 서가혈을 위로하라
오월이라 단오절의 농예홍상 가라입고
일축장성 굴리면서 어기여차 농직한다
칠월이라 칠석 은하수의 견우직여 놀아왔고
구월구일 용산음왜 몽실몽실 저국화난
도현명을 보려는가 추석을 웃었도다

일년이라 십이월에 가절마다 있건마는
유월염천 너무덥고 동지첫달 너무춥다
춘풍삼월 노하니 윤이월이 언제갈고
시제시제 언제올고 일각이 여사추라
화잔말고 공부하여 화전동문 지어보자
가가거겨 가는세월 나냐너녀 나와너와
고교구규 공부하야 노뇨누뉴 놀아보자
라라러려 날을바다 노류장화 꺾어들고
마마머머 마음먹은대로 모묘무유 모여안자
자자저저 배운글을 일시소창 하야보세
화류문갑 거쳐놓고 산훈필통 내어놓고
춘관동자 물길터라 산수먹을 신키가라
천황모부 신필로 화전동문 지어네니
그글 외하얏스데 우거진 통우사라
동지일행 등유사라 회소별 다화옵신이 다름안이로다
동군의 포덕하와 금애동자 께꼬리는 벗을차자 오락가락
백백홍홍 파난꽃을 운는다시 열어잇고
화지백첩 쌍쌍들은 향기찬난 거동이라
만물이다 봄을하고 충흥을 자랑하니
하물며 사람이야 견물생심 없을손가
반

[현대역]

농어가

어화 세상(世上) 사람들아 이 가사(歌辭)를 들어 보소
 태극(太極)1이 초(初)판2후에 음양(陰陽)3이 생겼어라
 음양(陰陽)은 일월(日月)이요 태극(太極)은 하늘이라
 일월성신(日月星辰) 삼광(三光)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四端)이라
 군신유의(君臣有義) 삼강(三綱)이요 부자유친(父子有親) 오륜(五倫)이라
 수화금목(水火金木) 오행(五行)이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四時)로다
 초목금수(草木禽獸) 만물(萬物) 중(中)에 영귀(榮貴)하사 이내 인생(人生)
 어머님께 살을 빌리고 아버님께 배4를 타서5
 칠성(七星)님6께 복(福)을 받고 서왕전(西往殿)에 명(命)을 받아
 삼신(三神)7님의 덕택(德澤)으로 이 세상(世上)에 나셨도다
 애달프구나 우리 부모(父母) 애지중지(愛之重之) 기를 적에
 업어주고 안아주고 애홀(愛恤)8하신 그 은혜(恩惠)를
 어느 천년(千年)에 갚을고 갚지 못할망정
 성성(星星)9 백발(白髮) 저 부모(父母)를 지순차순(至順10次順) 섬기어라
 인생(人生)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한번 아차 죽어지면
 열 자식(子息)이 시위(示威)할 듯 혼비백산(魂飛魄散) 하였으니
 만반진수(滿盤珍羞)11 벌려놓은들 불여생전일배주(不如生前一杯酒)12라
 오호라 세상(世上) 사람 역지사지(易地思之)13 생각하면
 삼강(三綱)을 저버리고 오륜(五倫)을 잊을쏘냐
 삼강오륜(三綱五倫) 제일(第一)이요 유손유손14 오음(五音)이라
 정(定)한 시체(時體) 이러하니 서하신구 변(變)해간다
 아마 지금(至今) 사람들은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제 덕(德)인 줄 까딱이면 부모(父母)공(功)은 간 데 없다
 자고급금(自古級今) 두고 보면 성인문(聖人門)15에 성현(聖賢) 나고
 충효문(忠孝門)16에 열녀(烈女) 나고 사부가(士夫家)17에 법절(法節) 있다
 그 이치(理致)는 그럴거만 일거일동(一舉一動) 하는 법(法)이
 그 행신(行身)에 달렸으니 반상(班常)이 따로 있나
 반상(班常)이야 있건마는 견문(見聞) 없고 무심(無心)하면
 제 망신(亡身)은 고사하고 육급선조 반기실까
 집에서 새던 그릇 들에 간들 아니 썰까
 제 부모(父母)에게 불효(不孝)한 자(者) 남의 부모(父母) 경대(敬待)할까
 관기도제 하고보면 이연수채 말할 손가
 일월(日月) 밝은 성신(星辰) 달과 광대(廣大)한 천지(天地) 간(間)의
 선선하고 약(弱)한 몸이 용납(容納)하기 어렵도다
 이런 이치(理致) 두고 보면 이연수채 말할 손가

국문(國文)인들 아니 볼까 국문(國文)을 알고 보면
 한문(漢文)보다 사치나지 내 일가(一歌) 들어보소
 효상한풍별경안(曉霜寒風별경鷓)은 한문(漢文)으로 이룰진대 뜻이 깊어 모르건만
 국문(國文)으로 이룰진대 어깨춤이 절로 난다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이 글 뜻이 이러하니 알아듣기 좀 좋을까
 이팔시절(二八時節) 청년(青年)들아 도지요요(桃之夭夭)18 좋은 시절
 부모(父母) 슬하(膝下) 자라날 때 이 공부(工夫)도 못하오며
 출가외인(出嫁外人) 되고 보면 후회막급(後悔莫及) 되오리라
 무자미에 화조가(花鳥歌)19와 정명도(程明道)20에 방화(芳花) 길을
 공부(工夫)하여 품에 품고 산(山) 백옥경(白玉經) 좋은데
 산보(山步)도 하려니와 놀음을 아니 갈래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에 화전(花煎)도 함 직하고
 유월(六月) 염천(炎天) 그늘 속에 위도래도 함 직하고
 중추(中秋)21 팔(八) 십오(十五) 일(日)에 제시진설 함 직하고
 구시월(九十月) 시단풍에 잔잔구경 함 직하고
 동지(冬至) 섣달 돌아들어 서답빨래 정(淨)히 하여
 찬찬의복(燦燦衣服)22 말라내어 송구영신(送舊迎新) 함 직하고
 세류(歲流) 정월(正月) 돌아들어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지어
 등(登) 동산(東山)이 망월(望月)하고 화투 쌍윷놀이
 일월(一月)이라 한식(寒食)일에 개자추(介子推)23의 맑은 충(忠)에
 제문(祭文) 지어 위로(慰勞)하자 찬밥으로 추상(推尙)하고24
 사월(四月)이라 초파일의 청사(靑紗)초롱 불 밝혀서
 문(門)을 동방 걸어놓고 석가(釋迦)를 위로(慰勞)하라
 오월(五月)이라 단오절(端午節)의 녹의홍상(綠衣紅裳) 갈아입고
 일축장성 굴리면서 어기여차 농 직한다
 칠월(七月)이라 칠석(七夕) 은하수(銀河水)의 견우(牽牛) 직녀(織女) 놀아왔고
 구월(九月) 구일(九日) 용산음(龍山飲)25에 뭉실뭉실 저 국화(菊花)는
 도연명(陶淵明)26을 보려는가 추석(秋夕)을 웃었도다
 일년(一年)이라 십이월(十二月)에 가절(佳節)마다 있건마는
 유월(六月) 염천(炎天) 너무 덥고 동지(冬至) 섣달 너무 춥다
 춘풍(春風) 삼월(三月) 노하니 윤(閏) 이월(二月)이 언제 갈고
 시제 시제 언제 올고 일각(一刻)27이 여삼추(如三秋)28라
 화전(花煎) 말고 공부(工夫)하여 화전(花煎) 동문(同文) 지어보자
 가가거거 가는 세월 나나너너 나와너와
 고교구규 공부해야 노랏누뉴 놀아보자
 라랏러려 날을 받아 노류장화(路柳牆花)29 꺾어들고
 마마머머 마음먹은 대로 모묘무묘 모여안자

자자저저 배운 글을 일시(一時) 소창(小唱) 하여보세
화류문갑(樺榴30文匣) 걸쳐놓고 산호필통(珊瑚筆筒) 내어놓고
춘관동자(春官童子) 물길 터라 산수(刪修)31 먹32을 시키거라33
천황모부 신풀(新筆)34로 화전(花煎) 동문(同文) 지어내니
그 글 외웠으되 우거진 통우사라
동지(同志) 일행(一行) 등(等) 유사(儒士)라 희소별 다하였으니 다름 아니로다
동군에 포덕(布德)하여 금애동자(金愛童子) 꺾꼬리는 벼를 찾아 오락가락
백백홍홍(白白紅紅)35 피는 꽃은 웃는 듯이 열려있고
화지(花枝) 백접(白蝶) 쌍쌍(雙雙)들은 향기(香氣) 찾는 거동(舉動)이라
만물(萬物)이 다 봄을 하고 춘흥(春興)을 자랑하니
하물며 사람이야 견물생심(見物生心)36 없을 손가
반(半)37

[각주]

- 1) 태극(太極) :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실체.
- 2) 초(初)판 : 어떠한 일에 있어 처음의 시기나 국면을 이르는 말.
- 3) 음양(陰陽) : 우주 만물의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기운으로서 이원적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것.
- 4) 배 :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
- 5) 타서 : 받아서.
- 6) 칠성(七星)님 : 불교에서 칠원성군(七元星君), 곧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높여 이르는 말.
- 7) 삼신(三神) :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 8) 애휼(愛恤) : 불쌍히 여기어 은혜를 베풀.
- 9) 성성(星星) :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 10) 지순(至順) : 더할 나위 없이 순함. 또는 매우 고분고분함.
- 11) 만반진수(滿盤珍羞) : 상 위에 가득히 차린 귀하고 맛있는 음식.
- 12) 불여생전일배주(不如生前一杯酒) : 생전의 한 잔 술보다 못하다.
- 13) 역지사지(易地思之) :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여 봄.
- 14) 유순유순 : 유순유순(柔順柔順).
- 15) 성인문(聖人門) : 성인(聖人)의 문하(門下).
- 16) 충효문(忠孝門) : 충신(忠臣) 및 효자(孝子)의 가문(家門).
- 17) 사부가(士夫家) : 사대부 가문(士大夫家門).
- 18) 도지요요(桃之夭夭) : 복숭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람.
- 19) 화조가(花鳥歌) : 화전가 계열.
- 20) 정명도(程明道) : 중국 송(宋)의 유자(儒者) 정호(程顥)의 호.
- 21) 중추(中秋) : 가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이르는 말.
- 22) 찬찬의복(燦燦衣服) :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운 비단옷.
- 23) 개자추(介子推) : 중국 춘추 시대의 은인(隱人)(?~?).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공자(公子)일 때 19년 동안 함께 망명 생활을 하며 고생하였으나, 문공이 귀국하여 왕이 된 후 자신을 멀리하자 면산(綿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추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한다.
- 24) 추상(推尙)하고 : 높이 받들고.
- 25) 구일(九日)용산음(龍山飲) : 李白(이백)의 시 <九日龍山飲(구일용산음)>에 나오는 구절.
- 26)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의 시인(365~427).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은 자(字). 405년에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으나, 80여 일 뒤에 <귀거래사>를 남기고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불린다. 시 외의 산문 작품에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따위가 있다
- 27) 일각(一刻) : 한 시간의 4분의 1로서 15분을 이룸. 곧, 매우 짧은 시간을 이룸.
- 28) 여삼추(如三秋) :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
- 29) 노류장화(路柳牆花) :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
- 30) 화류(樺榴) : 자단(紫壇)의 목재. 붉은빛을 띠며, 결이 곱고 몹시 단단하여 건축·가구·미술품 따위의 고급 재료로 주로 쓰임.

- 31) 산수(刪修) : 종이가 없던 옛날에 대나무 쪽을 엮어 그 위에 글씨를 써서 책으로 만듦.
- 32) 먹 : 묵(墨).
- 33) 시키거라 : 가져올 것을 시켜라.
- 34) 신풀(新筆) : 한문(漢文)이 아닌, 새로운 문체(文體)인 국문(國文)을 의미함.
- 35) 백백홍홍(白白紅紅) : 희끗희끗하고 불긋불긋한 모양.
- 36) 견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 37) 반(半) : 원전 작품의 절반 분량만을 실었음을 알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